

10년내 상용화 가능한 10대 보건의료기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10년 이내에 상용화가 유망한 10대 보건의료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10년 이내 상용화가 유망한 10대 보건의료기술'은 ▲체내 이식형 초정밀 약물전달기기 ▲체액을 통한 암 조기 진단 ▲인공지능 재활치료 ▲실시간 신체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항노화 요법 ▲생체 친화형 심혈관계 나노바이오 소재 ▲다중 병원체 신속진단 ▲새로운 3세대 항암제 ▲중분자 신약 ▲신약개발 평가 플랫폼 등이다.

세계 첫 회전근개파열질환 세포치료제 임상 3상

힘줄 자체의 재생을 목적으로 한 세계 첫 자기유래 세포치료제가 임상 3상에 들어가게 됐다. 테고사이언스(대표 전세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전근개파열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TPX-114'의 임상 3상 계획을 승인 받았다. TPX-114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우수 기술연구센터사업(ATC)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임상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실시된다.

세브란스 메디컬 아카데미 4월 개강

연세의료원이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과 함께 진행하는 의학 강좌 '세브란스 메디컬 아카데미' 6

기 수업이 오는 4월 9일 개강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윤도흠 연세의료원장의 '척추 건강 다스리기' 특강을 시작으로 암 집중분석, 황반변성, 임플란트, 정신 건강,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폐경, 예방접종 등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아카데미는 11월까지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씩 수업이 이뤄진다. 교수진의 설명과 함께 수강생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에게는 DNA 검사 등 다양한 혜택이 특전으로 제공된다.

진흥원-제약바이오협, 인공지능 신약개발 MOU 체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 이정희)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구로병원, 완화의료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3월 7일 구로병원 암병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는 기념식과 10년간의 발자취 및 활동보고가 진행됐으며, 축하공연 및 만찬이 이어졌다. 고대구로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지난 2008년 3월 호스피스병동을 개소 이후 10년 간 2,000여명의 말기암 환자를 돌봤다. 현재 12개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지지를 위해 미술, 음악, 원예 등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음악회, 생일 이벤트, 힐링나들이 등을 열어 말기암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보다 양질의 완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2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300여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강동경희대병원, 최신 수술로봇 다빈치 Xi 도입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지난 3월 5일 가장 최신

버전의 수술로봇인 제4세대 다빈치 Xi를 도입하고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이 도입한 다빈치 Xi는 이전 모델인 Si시스템보다 기능과 편의성이 대폭 업그레이드된 가장 최신의 수술로봇으로 보다 복잡한 수술이 가능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최신 기종인 다빈치 Xi의 도입과 함께 외과 뿐 아니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전문 의료진과 전담 간호사로 구성된 로봇 수술 센터를 개소했다.

가천갤러리 개관 2주년, 환자-임직원 힐링 자리매김

가천대 길병원(원장 이근)이 환자와 임직원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 가천갤러리(관장 김양우)가 개관 2주년을 맞았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6년 2월 병원 본관과 가천어린이병원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상에 92㎡ 규모의 '가천갤러리'를 조성했다.

가천갤러리는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병원 이용 고객들에게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 보호자, 고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잠시 여유를 갖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가천갤러리에서는 지난달 28일까지 극지연구소가 주최하는 극지사진 전시회가 개최됐다. 남극 월동기지에서의 근무하며 틈틈이 찍어 온 생생한 남극의 환경이 병원 속 갤러리에서 생동감 있게 재현됐다.

향후 3월에는 암환자들의 캘리그래피 전시, 최진숙 작가 개인전, 권혜진 작가 개인전 등이 예정되는 등 6월까지 전시 일정이 빼곡하다.

일동제약, ‘베시보’ 신약개발대상 대상 수상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의 만성B형간염치료제 ‘베시보’가 제19회 대한민국신약개발대상(KNDA) 대상을 수상했다.

베시보는 베시보피르디피복실말레산염을 성분의 만성B형간염치료제로, 대한민국 28호 신약이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뉴클레오타이드 계열의 약제이다. 지난해 5월 개발에 성공, 같은 해 11월 시장에 발매됐다.

베시보는 임상시험 결과, 기존 치료제와 대등한 수준의 치료 효과는 물론, 기존 치료제에서 발견됐던 부작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 허가 이후에도 임상연구를 지속해 근거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96주 사용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 장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했다.

한편,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 연구개발 의욕 고취를 위해 1999년 4월 제정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다.

유한재단, 올해 110명 총 11억원 장학금 지급



유한재단(이사장 한승수)은 지난 2월 28일 오전 대방동 유한양행 대강당에서 ‘2018년 유한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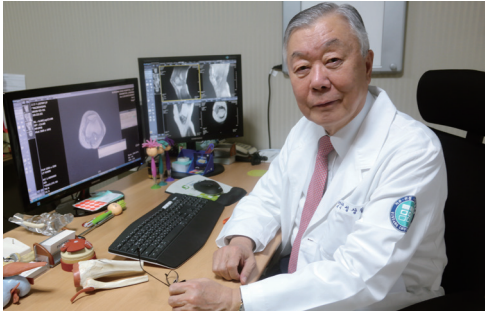
2018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가톨릭대 김도연 등 110명으로 1년 등록금을 두 학기에 나눠 지급 받는다. 2018년 장학금 규모는 1, 2학기를 합쳐 총 11억원이다. 유한재단은 지난 1970년 설립 이래 올해까지 48년간 매년 우수 특성화고 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왔으며, 장학금 수혜자는 연인원 4100여명, 지원금액은 총 133여 억원에 이른다.

성상철, 분당척병원 명예원장으로 의료계 복귀

첫 의사 출신으로 전문성과 소신을 지켰다는 평을 받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다시 의료계 현장으로 돌아왔다.

전 성상철 이사장은 분당척병원에서 22일부터 일주일에 한차례씩 분당척병원의 명예원장으로 외래진료를 진행한다.

강한 추진력과 흔들리지 않는 독심으로 건강보



의료 부과체계 등을 개편하며 보건의료계 제도 개선에 이바지한 성상철 명예원장은 퇴임 직후 수많은 정치권과 학계의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아진 바 있다.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 대사증후군 질환**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심장학회 심장대사증후군연구회(회장 고광곤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지난 2월 2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0.3%이었으며 30세 이상은 27%, 65세 이상은 37.7%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도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유병률은 2007년 21.1%에서 2015년 22.4%로 유의한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기간 동안 남성은 21.9%에서 26.9%로 증가했고, 여성은 20.3%에서 17.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 유병률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뚜렷했다.

여성의 경우 40대 12.2%에서 50대 25.5%로 급격히 증가했고 60대 39.2%, 70대 이상 40.5%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 30대 22.2%, 40대 30.6%로 증가하다 50대 36.5%로 가장 높았고, 60대 36.5%, 70대 이상 30.1%로 다소 감소했다.

**국내 중견제약,
치매신약 개발 잇달아 도전**

최근 삼진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명문제약 등 국내 중견 제약사들은 잇달아 산학협력 및 지분투자,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치매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삼진제약은 최근 한양대 약대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 신약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기전의 치매 치료 신약개발에 착수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퇴행성 뇌질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바오벤처에 투자함으로써 치매질환치료 신약개발에 나섰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현재 생산 중인 치매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와 함께 지속적으로 퇴행성 뇌질환 의약품 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명문제약은 지난달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 R&D지구) 입주를 계기로 올해 상반기 신약연구소를 설립 후 치매치료제 등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명문제약 신약연구소는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통해 임상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MP저널